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허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卷之三



10

이민
주제별

제한됨 백금 개수 이어

문: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영주권 진행을 처음 시작할 때, 영주권 진행에 있어 대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2년 안팎이면 영주권 발급이 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발급까지 대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영주권은 언제 즈음 승인이 될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문: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영주권 진행을 처음 시작할 때, 영주권 진행에 있어 대기가 있을 것이다.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발급까지 대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영주권은 언제 즈음 승인이 될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는 국무부의 비자 블리튼에 매달 공시되고 여기에 발표되는 날짜에 따라 최종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그리고 최종 승인일이 결정된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한국 국적자의 신청자는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에 대기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우선순위에 따라 문호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후퇴 또는 전진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진

답: 영주권 승인은 한 해에 발급 가능한 영주권 개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급 가능할 개수보다 신청자가 초과하면 영주권 문호가 달히고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대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통 취업 영주권으로 할당된다. 민비자 개수는 총 14만 개, 기족 영주권에는 22만6000개가 매년 발급 가능할 숫자이다. 이 총 개수는 영주권의 종류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에 따라 나뉘고, 문호 상황에 따라 마지막 막서 주민 1-485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혹은 이민비자 신청 순서가 오게 된다. 이로 하여

는 국무부의 비자 블러터에 매달 공시되고 여기에 발표되는 날짜에 따라 최종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그리고 최종 승인일이 결정된다.

취업 영주권을 진행하는 한국 국적자의 신청자는 최근 몇 년간 대부분의 영주권 진행에 대기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우선순위에 따라 문호가 열리거나 닫히거나 후퇴 또는 전진한다는 의미를 모르고 전

월부터 취업 영주권 비숙련공 진행에 제일 먼저 대기가 발생하였고, 취업 영주권 2순위는 2022년 12월부터 그리고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진행에는 2023년 5월부터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영주권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O라고 하는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가 해당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가 된다. 만일 PERMO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I-140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가 우선순위 날짜가 된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전송

2011년 7월부터 비자 블러틴은 사전접수일 그리고 최종승인 가능 일이 적힌 두 개의 차트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사전접수일이란 영주권 최종승인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된 것은 아니나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I-485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여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중단할 수 있고, 노동허가증 정된다.

기중도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날짜이다. 만일 신청자가 해외에 있어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접수일은 대사관에서 인터뷰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로 인식되어 비자 서류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최종승인이 가능한 날짜가 적힌 블라틴은 Final Action Chart라고 불리는데, 이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를 지나야 최종 영주권 승인 혹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사전접수일과 최종 승인 가능일이 분리되어 차트가 발표되나, 사전 접수일에 적힌 날짜가 핵심 적용일

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에서 매달 비자 블리턴이 발표되면, 1~485 신청서 접수를 받는 이민국은 해당 월에 어떤 차트를 적용하여 신청서를 받을지를 별도 발표하게 된다. 2023년 10월과 11월의 블리턴을 보면 3순위 전문직 그리고 숙련공의 문호가 2021년 12월 1일까지 열린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의 최종 승인이 되려면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2021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이

사전접수일이 적힌 차트의 우선순위 날짜는 2023년 2월 1일이다. 그 러므로 최종승인이 가능한 문호는 열리지 않았으나, 2023년 11월 말까지는 우선 I-485 접수가 가능한 것이다. 아직 12월 문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3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 진행을 하는 신청자라면 일단 11월 30일 전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12월에 사전접수일 적용이 되지 않거나 문호가 후퇴한다면 언제 I-485 신청서 접수를 다시 할 수 있는 달까지 신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문: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영주권 진행에 있어 대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2년 안팎이면 영주권 발급이 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영주권 발급까지 대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전달받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영주권은 언제 즈음 승인이 될지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영주권 승인은 한 해에 발급 가능한 영주권 개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급 가능한 개수보다 신청자가 초과하면 영주권 문호가 막히고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대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통 취업 영주권으로 할당된 민비자 개수는 총 14만 개, 기축 영주권에는 22만6000개가 매년 발급 가능한 숫자이다. 이 총 개수는 영주권의 종류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에 따라 나누고, 문호 상황에 따라 마지막 서류인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혹은 이민비자 신청 순서가 오게 된다. 이러한 날짜

는 국무부의 비자 블러틴에 매달 공시되고 여기에 발표되는 날짜에 따라 최종 영주권 신청서 접수일, 그리고 최종승인일이 결정된다.

2017년 7월부터 비자 블러틴은 사전접수일 그리고 최종승인 가능일이 적힌 두 개의 차트를 공시하기 시작했다. 사전접수일이란 영주권 신청자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된 것은 아니나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라면 I-485 신청서를 미리 접수하여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중단할 수 있고, 노동허가증 또는 전진한다는 의미를 모로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2년 6월부터 취업 영주권 비숙련공 진행에 제일 먼저 대기가 발생하였고, 취업 영주권 2순위는 2022년 12월부터 그리고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 진행에는 2023년 5월부터 대기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취업 영주권은 Labor Certification 혹은 PERM이라고 하는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되는 날짜가 해당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짜에 따라 대기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보통 취업 영주권으로 할당된 민비자 개수는 22만6000개가 매년 발급 가능한 숫자이다. 이 총 개수는 영주권의 종류 그리고 신청인의 국가에 따라 나누고, 문호 상황에 따라 마지막 서류인 I-485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혹은 이민비자 신청 순서가 오게 된다. 이러한 날짜

는 국무부에서 매달 비자 블러틴이 발표되면, I-485 신청서 접수를 받는 이민국은 해당 월에 어떤 차트를 적용하여 신청서를 받을지를 별도 발표하게 된다. 2023년 10월과 11월의 블러틴을 보면 3년 순위 전문직 그리고 숙련공의 문호가 2021년 12월 1일까지 열린 것을 볼 수 있다. 즉, 영주권의 최종승인이 되려면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2021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이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사전접수일이 적힌 차트의 우선순위 날짜는 2023년 2월 1일이다. 그

러므로 최종승인이 가능한 문호는 열리지 않았으나, 2023년 11월까지는 우선 I-485 접수가 가능한 것이다. 아직 12월 문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3순위 전문직 또는 숙련공 진행을 하는 신청자라면 일단 11월 30일 전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 좋겠다. 만일 12월에 사전접수 일정이 되지 않거나 문호가 후퇴한다면 언제 I-485 신청서 접수를 다시 할 수 있는 일까지 신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발급 개수 있어 사전 접수일·최종 승인일 차트 공시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기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려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koreadailyny.com\)](mailto:e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1-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